

보도시점 2026. 9. 22.(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6. 9. 21.(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Ⅱ급 큰바늘꽃 이식 개체 현지 적응 성공 확인

- 청송군 주방천 큰바늘꽃 이식지에서 지난 1년간 자연 번식으로 개체수 2.5배 증가
- 큰바늘꽃의 현지 적응으로 하천 생태계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경상북도 청송군 주방천 일대에 이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큰바늘꽃 개체가 현지 적응에 성공한 것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큰바늘꽃은 경상북도, 강원도, 울릉도의 하천과 계곡 주변 자갈밭이나 축축한 모래땅에 무리 지어 살던 여러해살이풀이다. 하천의 생물다양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종이지만, 무분별한 하천 개발로 대부분의 원자생지가 훼손되어 개체군이 감소했다. 줄기 높이 1~2m까지 자라며 잎은 서로 마주 나는데, 줄기와 잎에 길게 퍼진 털이 뽁뽁하게 나는 특징이 있다. 7~8월에 꽃을 피우고 9~10월에 씨를 맺는다. 서식조건이 적합하고 안정된 곳에서는 씨앗으로 퍼지지만 땅속줄기로도 번져나가기도 한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지난해 8월 청송군 주방천 일대에 큰바늘꽃 200개체를 이식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자연 번식으로 개체수가 2.5배 증가해 현재는 500여 개체가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개체는 건강하게 연보랏빛 꽃을 피웠고, 그 주변으로 재래꿀벌, 배추흰나비 등 곤충들이 날아들었다. 일부 개체가 뿌리줄기를 뺏어 이식지 보호 울타리 밖으로 번져나가는 모습도 관찰됐다.

이번 이식지는 과거에 큰바늘꽃이 자생했으나 인위적인 개발로 야생 개체군이 사라진 지역이다. 큰바늘꽃의 성공적인 현지 적응은 과거 서식지에서 사라진 야생생물이 우리의 복원 노력을 통해 자연에 다시 정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큰바늘꽃을 비롯한 다양한 멸종위기종의 복원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멸종위기종의 개체군 회복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도모하고,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재신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장은 “큰바늘꽃의 현지 적응 기술 개발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묵묵히 멸종위기종을 복원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가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큰바늘꽃 개요.
2. 큰바늘꽃 이식지 현황 사진. 끝.

담당 부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복원연구실 식물복원팀	책임자	팀	장	장금희	(054-680-7320)
		담당자	차	장	김성준	(054-680-7287)

- **종 명(학명)** : 큰바늘꽃 (*Epilobium hirsutum* L.)
- **보 호** :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2012년 지정)
- **형태특성** : 땅속줄기가 옆으로 길게 뻗는다. 높이 1~2m 자라며, 줄기와 잎에 길게 퍼진 샘털이 뽁뽁하게 난다. 잎은 줄기 아래쪽에서는 마주나며 위쪽에서는 어긋나고 긴 타원형으로 길이 4~12cm, 너비 0.3~4.0cm이며 가장자리에 뽁족한 톱니가 있다. 꽃은 줄기 위쪽의 잎겨드랑이에서 1개씩 피는데 분홍색이며 지름 1.5~2.5cm이다. 꽃받침은 4갈래로 갈라지고, 꽃잎은 4장이며, 암술머리가 4개로 깊게 갈라진다. 열매는 바늘 모양으로 길이 3~9cm이다.
- **생태특성** : 여러해살이풀로 하천 또는 계곡 주변의 자갈밭이나 모래땅의 축축한 곳에 무리 지어 산다. 7~8월에 꽃이 피고 9~10월에 씨를 맺는다. 서식조건이 적합하고 안정된 곳에서는 씨앗으로 퍼지지만 땅속줄기로도 번져나가기도 한다.
- **위협요인** : 관상을 위한 무차별적 채취와 도로 건설, 시설물 증축, 경작지 조성 등의 서식처 훼손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국가생물적색목록에 취약(VU), IUCN Red List에는 최소관심(LC)으로 평가되어 있다.
- **출처** : 국립생태원(2023), 한 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야생생물(<https://www.nie.re.kr>)



꽃을 피운 큰바늘꽃 자연증식 개체(2026.8.)



이식지 보호 울타리 밖으로 확산된
큰바늘꽃 개체(2026.8.)



작년 청송군 큰바늘꽃 이식 당시
모습(2025.8.)



큰바늘꽃 이식지 전경(2026.7.)